

화려한 조명 뒤 짙은 그림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속 영상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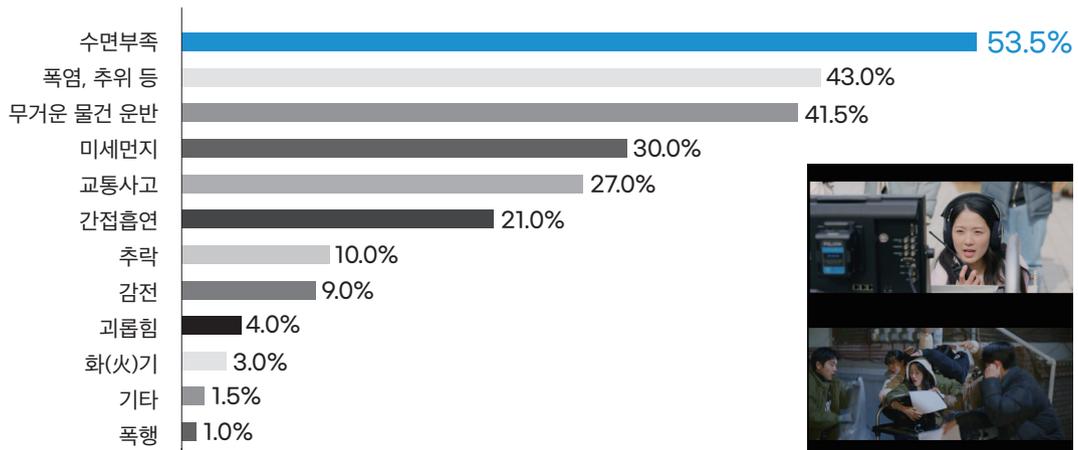
글 편집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임술(김혜윤)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아이돌 류선재(변우석)의 “살아 있어 줘서 고맙다”라는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진다. 그날로 류선재의 팬이 된 임술은 아르바이트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며 영화감독을 꿈꾼다. 끝내 임술은 자신의 시나리오로 첫 영화를 만들게 되었지만, 배우를 섭외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점점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지며 고군분투하는 임술의 모습은 현재 극한의 노동시간으로 작업하는 영상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유튜브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방송, 드라마, 영화를 넘어 영상 크리에이터의 활약 범위가 넓어졌다.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다가, 빠듯한 스케줄로 극악의 ‘워라밸’이 업계 관행처럼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에 대한 응답



출처 :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현장발표(2020)

방송제작자 일주일 평균 노동일수 및 노동시간

구분		표본 수	일주일 동안의 전체 노동 일수	일주일 동안의 전체 노동시간	
			평균	평균	
전체		1,204명	4.9일	50.9시간	
직군별	기획(제작+연출)	273명	5.2일	56.5시간	
	드라마	기획	96명	4.9일	53.1시간
장르별	교양	기획	94명	5.3일	55.2시간
	예능	기획	83명	5.6일	62.0시간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2023년 1~9월 말까지)

회사가 곧 집이 되는 환경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제도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많은 방송·영화계 스태프들은 평균 약 50시간 이상 60시간에 달하는 노동 중이다.

방송을 앞두고 아이템이 변경되거나, 마감 전날에는 컴퓨터 앞에서 밤새우는 일이 일상이며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잦아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폭염·한파·폭우 등 기상 악조건 속 야외촬영도 감내해야 한다. 세트촬영 역시 각종 장비로 인해 위험요소가 가득하다. 무거운 장비를 드느라 목·허리 디스크, 어깨관절 등 근골격계질환을 겪는 비율도 높다. 게다가 비정규직 프리랜서라면 노동 중 다쳐도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회사를 곧 집처럼 여기며 노동해야 하는 환경이지만, 그로 인한 질병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고 만다.

죽음으로 내몬 밤샘 촬영

2016년 10월, tvN 공채 출신 조연출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하루 20시간 넘게 노동하며,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일상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고, 영화노조 결성 및 표준근로계약서가 자리 잡으면서 처우가 차츰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3년 말,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의 노동시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기나긴 싸움 끝에 밤샘 촬영이 이어지는 노동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스태프들은 다시 그 권리를 잃을 걱정부터 해야 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상황은 방송업계도 마찬가지다. 장시간 노동은 물론, 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인 만큼 노조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기도 어렵다. 방송국이 편성권을 쥐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비정규직 PD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폐지 통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리 장애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양질의 콘텐츠도 탄생한다.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미디어 속 그림자 저편에는 극악한 노동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